2018 길 위의 인문학

도자기와 판소리

여수시립쌍봉도서관

강사 이기범

하나의 자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라의 만사가 모두 이를 닮는다.

박제가 『북학의』

1. 백자의 시대

1. 백자란?

백토(白土)로 만든 형태 위에 무색 투명의 유약을 입혀
1,300℃~1,350℃ 정도에서 환원염으로 구워낸 자기의 일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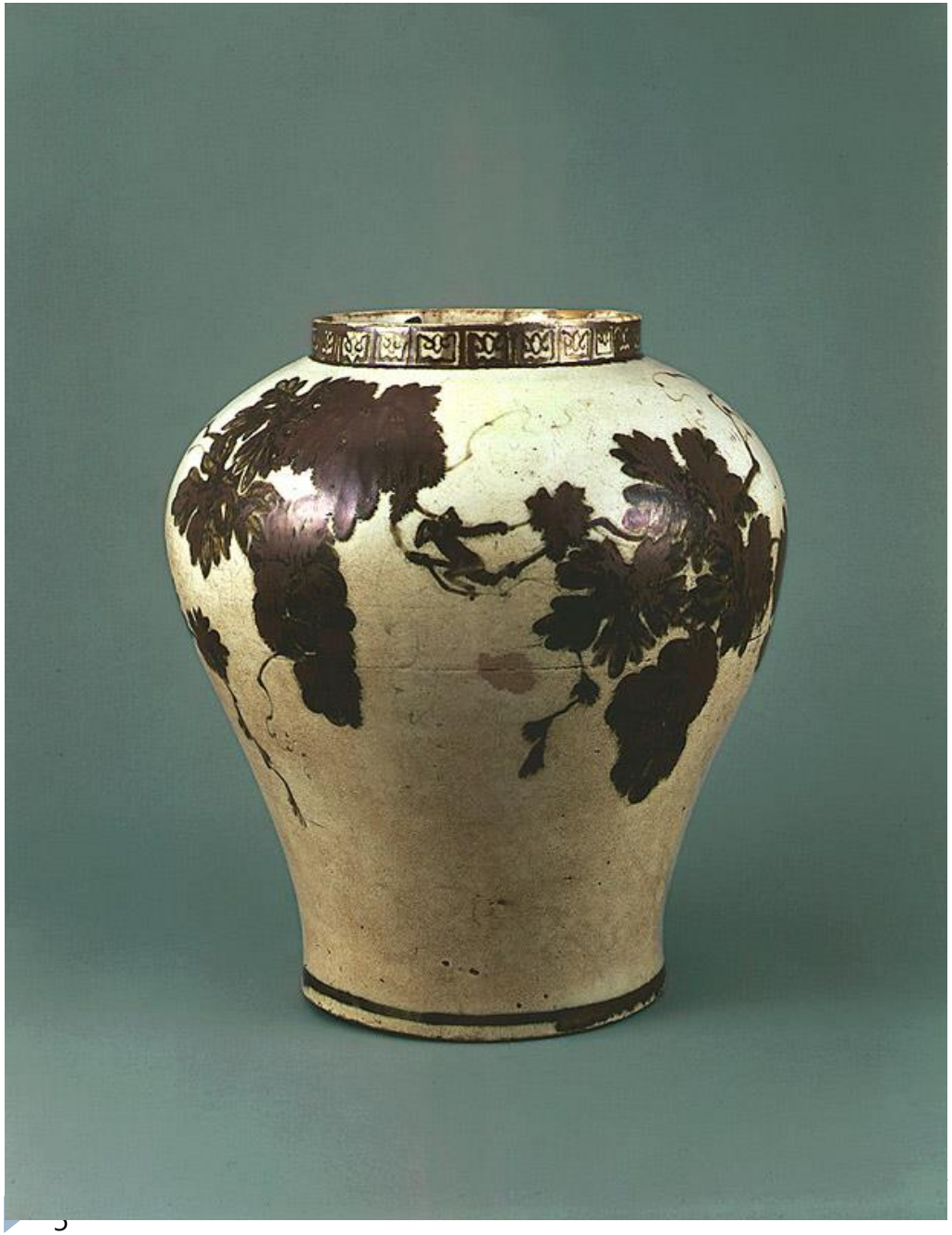
2. 백자의 특징

-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한 도자기(흙, 유약, 온도)
- 사대부가 지향하는 순결함과 검소함(성리학 이념 부합)
- 그림의 품격 감상(백자의 가치는 그림, 청화가 대세)
- 조선만의 백자, 달항아리
- 비대칭과 자유분방한 멋

2. 사옹원 분원

[사옹원 분원]

- 전국 도자기 생산 가마 - 자기소(139곳), 도기소(185곳)
- 사옹원 분원 위치 - 경기도 광주 남종면 분원리
- 최고 책임자 도제조(왕자, 의정부 정승 등)
- 도자기 장인 380명
- 연간 책임 생산량 1372죽(1죽은 10개)
- 연료(나무)공급지 – 분원 주변 7개 면, 10년 단위 벌목
- 급여체계 – 대체로 미지급(* 대대로 직역, 사경영 허용)
- 상인자본 투입으로 사경영 증대
- 1884년 민영화 이후 1910년 이후 쇠퇴



1. 국보 제93호

백자 철화포도원숭이문 항아리

국립중앙박물관소장

* 전문 화가들이 그린 회화성이 짙은 그림

2. 국보 제166호

백자 철화매죽문 항아리

16세기 후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당당하고 풍만한 모양새에, 능숙한 솜씨로 매화와 대나무를 표현하여 문양과 형태가 잘 어울리는 우수한 작품

4. 국보 제170호

백자 청화매조죽문 유개 항아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전 조선 초기 고분. 이 무렵 백자 항아리의 형태와 문양 연구에 중요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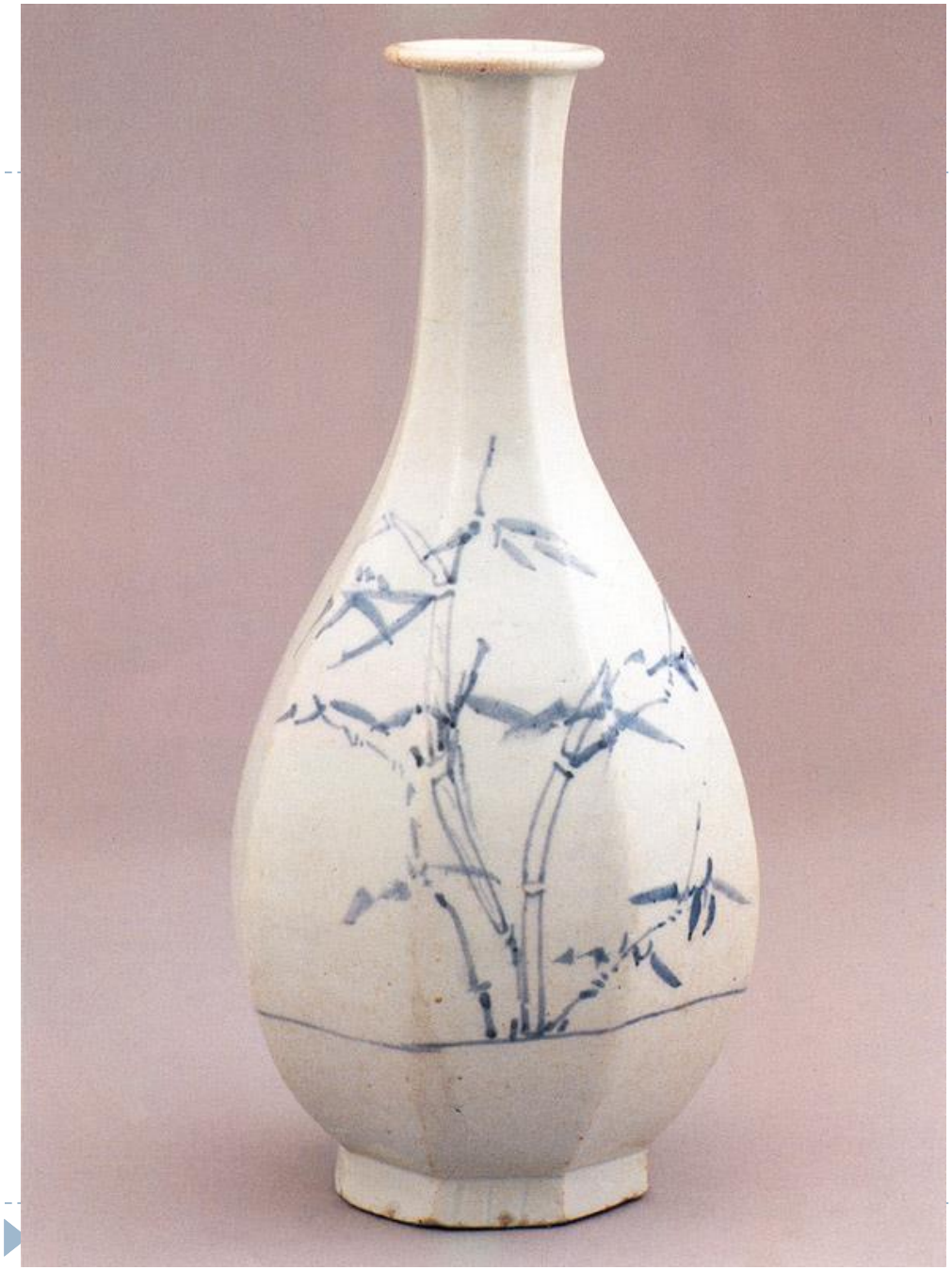
5. 국보 제176호

백자 청화‘홍치2년’명 송죽문 항아리

1489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 청색의 농담으로 회화적인 효과. 명문



6. 국보 제258호

백자 청화죽문 각병

18세기 전반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 모깎기한 모양이나 간결한 청화문양, 그리고 투명에 가까운 백자유

7. 국보 제261호

백자 유개 항아리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 조선 전기의 격조와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품격의 작품

8. 국보 제286호

백자 ‘천’ ‘지’ ‘현’ ‘황‘ 명 발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 조선 전기 백자로서 백자의 계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

9. 국보 제294호

백자 청화철채동채초충문 병

18세기 전기

간송미술관 소장

* 청화철채동채를 함께 사용함은 매우 이례적인 기법. 파격미. 세련미.

10. 국보 제310호

백자 달항아리

17세기 후기~18세기 전기

개인 소장

* 순백의 미와 균형감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백자의 독특하고 대표적인 형식

3. 세계무형유산 판소리(2003)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현황 - 총 128개국 378 건

판소리 [Pansori epic chant]

제목 : Pansori epic chant(판소리)

- 세계 평균 2.9건 / 한국 19건

4. 서편제와 동편제 그리고 중고제

<판소리 유파>

판소리의 유파를 나누는 우선적인 기준은 전승 지역이다. 특출한 명창이 사는 지역이 자연스레 판소리 전승의 중요 거점이 되었다. 요즘도 그러하지만 전통 사회에서는 명성과 교육적 능력을 가진 명창이 사는 집에 학생들이 와 함께 기식하면서 오랜 시간 학습하였다. 같은 스승에게 배우다 보니 배우는 이들의 소리 스타일도 거의 같게 되었다. 씩씩하고 웅장한 맛이 나게 소리를 끌어가거나, 애원처절하며 기교를 많이 부리는 일을 위주로 소리하는 것은 소리를 독자적으로 수련하여 이뤄낸 특정한 명창의 능력이지만, 이것이 일가를 이뤄 제자들에게 전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동일한 지역에서 불리는 동일한 스타일의 판소리가 된다.

<판소리의 세계>문학과 지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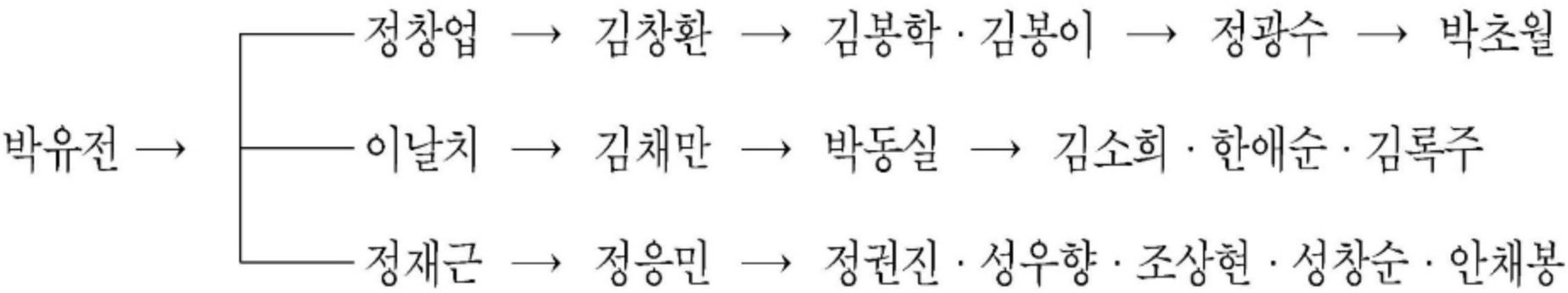
4. 서편제와 동편제 그리고 중고제

명창 박유전(朴裕全)의 법제를 이어받은 서편제는 광주·나주·해남·보성 등지에서 성행하였다. 창법은 유연애절(柔軟哀切)하고, 소리가 맛있으며, 소리가 길다. 서편제는 계면조(界面調)에 장하다. 소리의 끝도 동편제(東便制)와 대조적으로 길게 꼬리를 끌고, 특히 붙임새에 기교가 다양하여 소리가 동편제보다 맛이 있고 구성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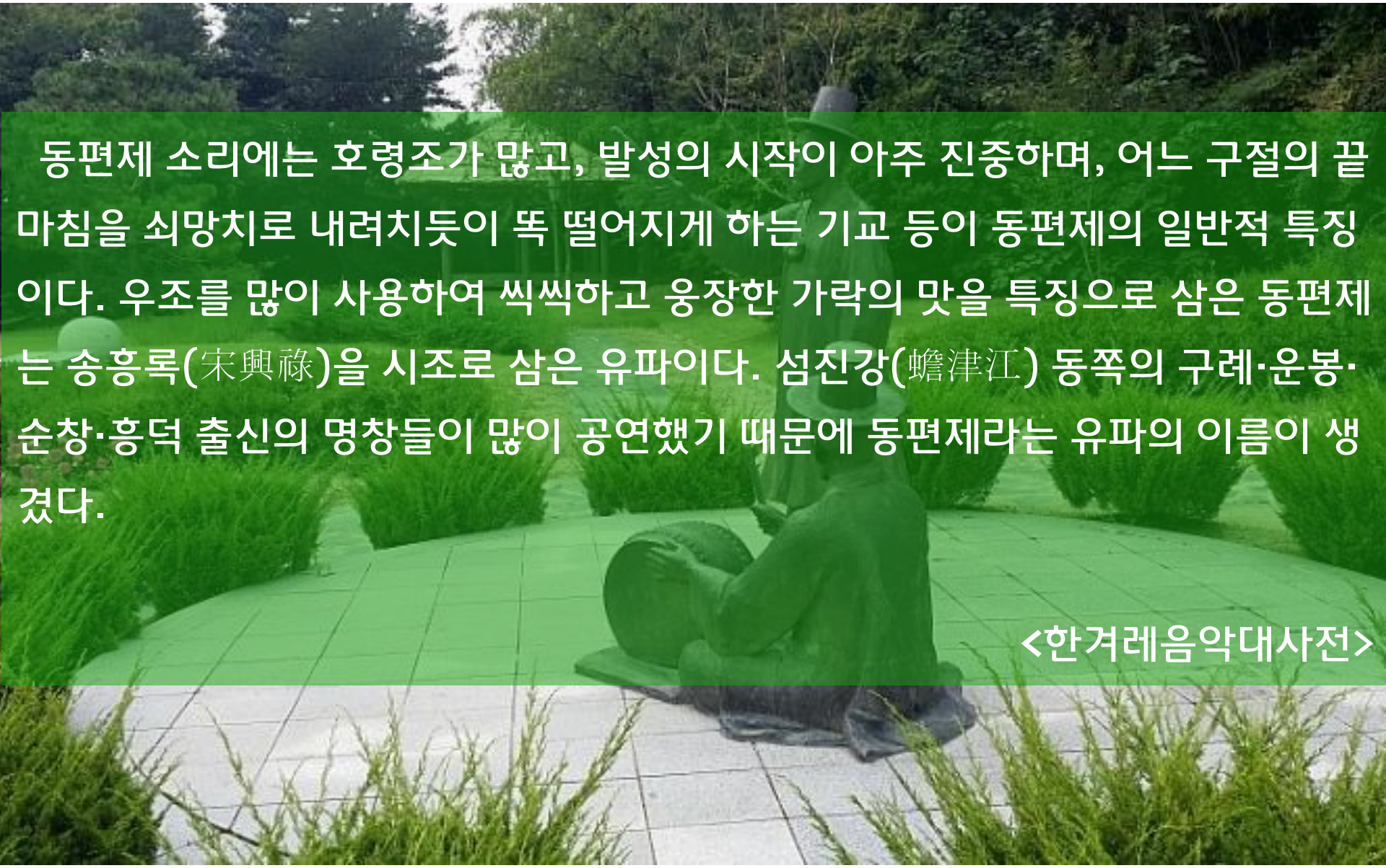
서편제를 흔히 강산제(岡山制)라고 부르는 이유는 서편제의 시조로 삼은 박유전의 고향이 전남 보성군(寶城郡) 강산리(岡山里)였으므로 그 지역의 이름을 따다가 붙였기 때문이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서편제의 계보


박유전 →
정창업 → 김창환 → 김봉학 · 김봉이 → 정광수 → 박초월
이날치 → 김채만 → 박동실 → 김소희 · 한애순 · 김록주
정재근 → 정응민 → 정권진 · 성우향 · 조상현 · 성창순 · 안채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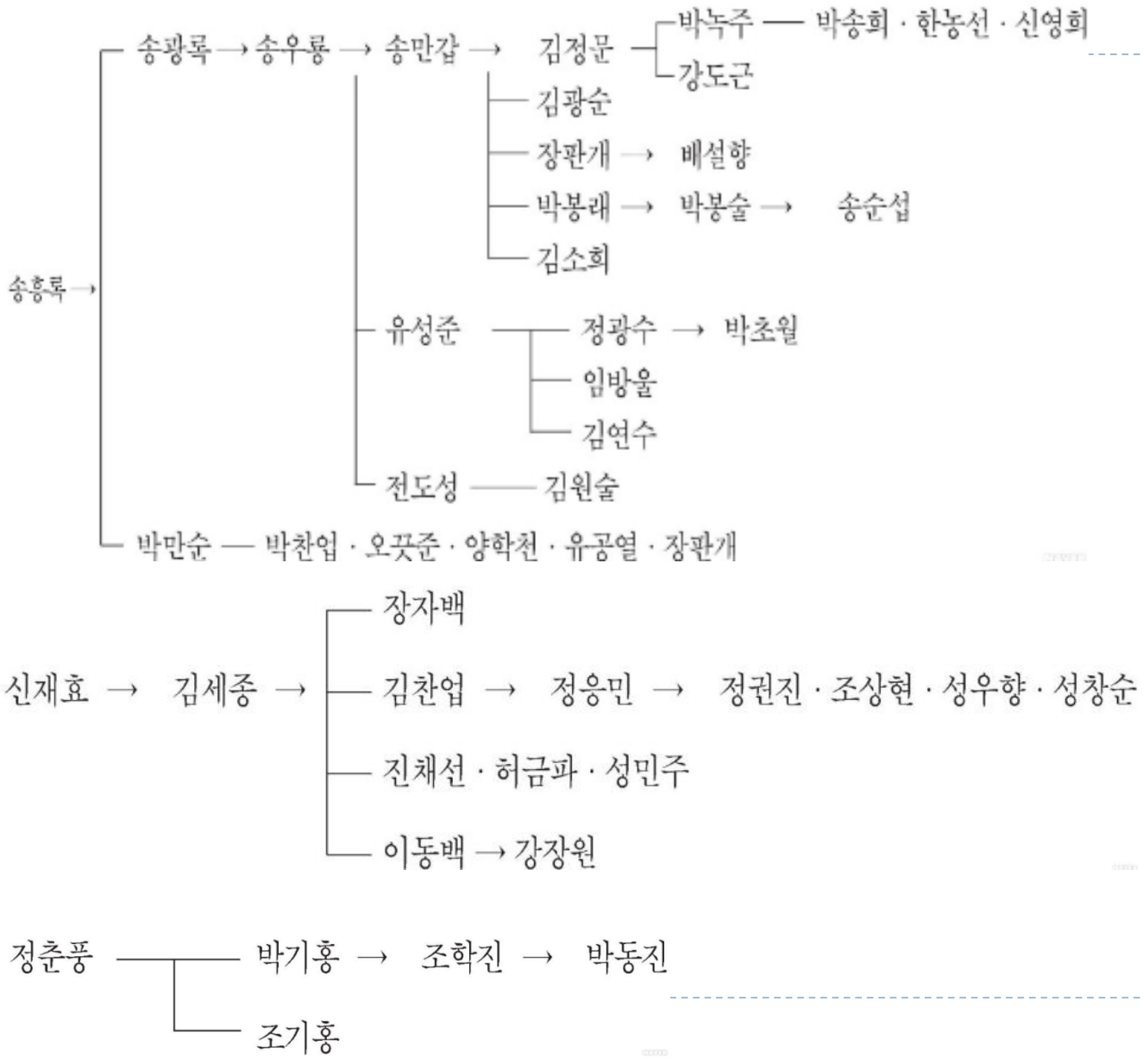
4. 서편제와 동편제 그리고 중고제



동편제 소리에는 호령조가 많고, 발성의 시작이 아주 진중하며, 어느 구절의 끝마침을 쇠망치로 내려치듯이 똑 떨어지게 하는 기교 등이 동편제의 일반적 특징이다. 우조를 많이 사용하여 씩씩하고 웅장한 가락의 맛을 특징으로 삼은 동편제는 송흥록(宋興祿)을 시조로 삼은 유파이다. 섬진강(蟾津江) 동쪽의 구례·운봉·순창·흥덕 출신의 명창들이 많이 공연했기 때문에 동편제라는 유파의 이름이 생겼다.

<한겨레음악대사전>

동편제의 계보


송흥록
송광록 → 송우룡 → 송만갑 → 김정문
박녹주 — 박송희 · 한농선 · 신영희
강도근
김광순
장관개 → 배설향
박봉래 → 박봉술 → 송순섭
김소희
유성준
정광수 → 박초월
임방울
김연수
전도성 — 김원술
박만순 — 박찬업 · 오끗준 · 양학천 · 유공열 · 장관개
신재효 → 김세종 →
장자백
김찬업 → 정응민 → 정권진 · 조상현 · 성우향 · 성창순
진채선 · 허금파 · 성민주
이동백 → 강장원
정춘풍
박기홍 → 조학진 → 박동진
조기홍

4. 서편제와 동편제 그리고 중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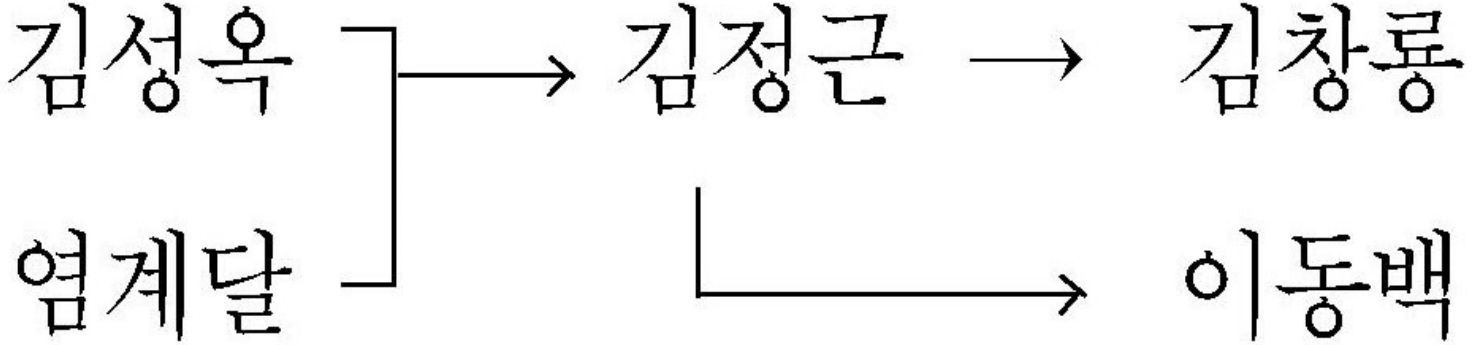
동편제(東便制)나 서편제(西便制)가 아닌 그 중간에 해당되는 유파라는 뜻의 중고제는 경기도 남쪽 지방 및 충청도 지방에서 성행(盛行)한 유파이다.

소리의 고저가 명확하고, 사설의 구성이 분명하며, 경드름을 많이 사용하는 점이 중고제의 음악적 특징으로 꼽힌다.

염계달(廉啓達)을 시조로 삼는 중고제는 책을 읽듯이 덤덤한 맛으로 노래 부르는 것이 음악적 특징이다.

<한겨레음악대사전>

중고제의 계보



5. 동리 신재효와 판소리 여섯 마당

1812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남

35세 선대에 모은 재산을 바탕으로 이방 및 호장 역임

판소리 이론가 및 제작자, 후원가 활동 시작

여류명창 탄생시킴 – 진채선 등

어린이청소년 판소리를 별도로 만듬(동창) – 현 연습생 제도와 유사

듣는 판소리에서 보는 판소리로~ 표현, 기교, 연기력 중시

판소리를 여섯 마당으로 정리

=> 상스러움 지양, 유교적 예술적 경지 강조

=> 하층민의 생기 보다는 아전의 고상함, 판소리의 다양성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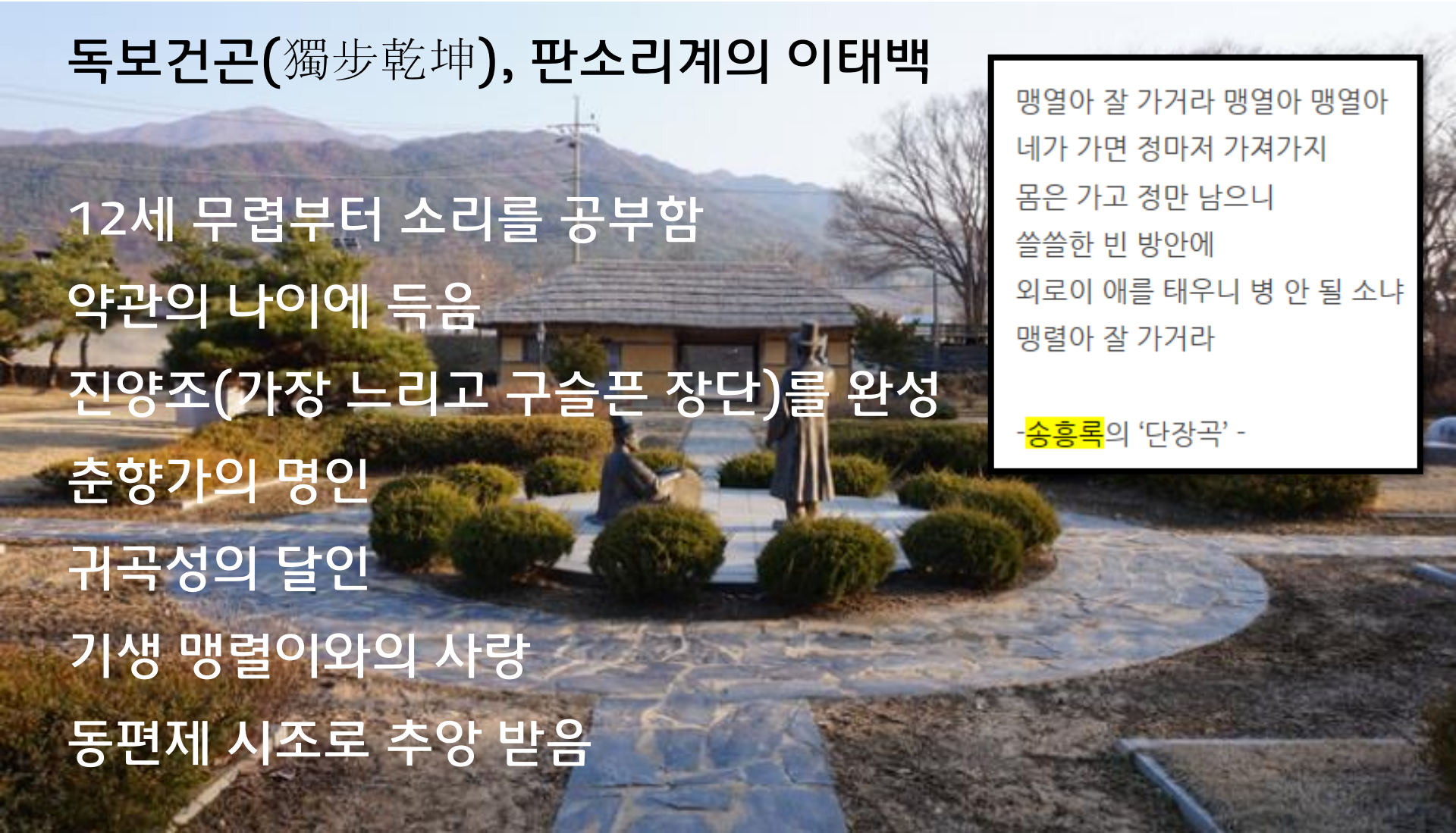
=> 판소리의 체계화 및 대중화에 독보적인 기여를 함

5. 동리 신재효와 판소리 다섯 마당

- 춘향가(春香歌)
- 심청가(沈清歌)
- 흥부가(興夫歌)
- 수궁가(水宮歌)]
- 적벽가(赤壁歌)
- 변강쇠타령(卞-打令)
- 장끼타령(-打令)
- 무숙이타령(-打令)
- 옹고집타령(雍固執打令)
- 배비장타령(裵裨將打令)
- 강릉매화타령(江陵梅花打令)
- 숙영낭자전(淑英娘子傳)

6. 판소리 명인열전

동편제의 창시자, 가왕 송흥록(1780년경~1863년경)



독보건곤(獨步乾坤), 판소리계의 이태백

12세 무렵부터 소리를 공부함

약관의 나이에 득음

진양조(가장 느리고 구슬픈 장단)를 완성

춘향가의 명인

귀곡성의 달인

기생 맹렬이와의 사랑

동편제 시조로 추앙 받음

맹열아 잘 가거라 맹열아 맹열아
네가 가면 정마저 가져가지
몸은 가고 정만 남으니
쓸쓸한 빈 방안에
외로이 애를 태우니 병 안 될 소냐
맹렬아 잘 가거라

-송흥록의 '단장곡' -

6. 판소리 명인열전

이날치(1820~1892)

백성을 웃기고 울린 흉내내기의 달인

줄타기 명인 출신

박유전에게 판소리 사사(서편제 계보)

새타령의 일인자

수많은 일화를 남김

제자 양성(김채만, 정정렬, 김창룡 등)

6. 판소리 명인열전

송만갑(1865~1939)

철성의 소유자, 어전에서 노래한 대명창

명창집안 송씨가문의 직계
(송흥록-송광록-송우룡-송만갑-송기덕)
10세 무렵부터 소년명창으로 알려짐
14세 무렵 전국8대 명창을 꺾고 전주대사습놀이 대회에서 우승
동편제를 가장 잘 하는 동시에 다른 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
이동백, 정정렬과 조선성악연구회 등을 만들고 창극공연에 힘씀
제자양성(장판개, 박녹주, 김정문, 박중근, 박봉래 등)

6. 판소리 명인열전

이동백(1866~1949)

웅혼한 소리, 선풍도골의 용모

재인집안 출신

희이산 토굴에서 독학으로 소리 공부

김정근, 김세종 등 당대 명창의 제자가 됨

호방한 용모와 음성으로 고종의 사랑을 받음(통정대부)

창법이 독창적으로 즉흥성이 강함

창극공연과 제자양성에 힘씀(정응민, 이화중선 등)

바위옷

– 서정주

日政의 植民地 朝鮮半島에 생겨나서,
妓生이 되어서, 남의 세째 妾쯤 되어서,
목매달아서 그 모가지의 노래를 하늘에 담아 버린
二十世紀의 우리 女子 國唱 李花中仙.
안개 짙은 겨울날 바위옷 푸르른 걸
보고 있으면
거기 문득 그네의 노래 소리 들린다.
하늘도 하늘도 햇볕도 못 가는 아주 먼 하늘에 가 담겨 오그리고 있다가
추운 안개를 비집고 다시 우리 半島의
바위옷에 와 울리는
하늘 아래선 제일로 서러웠던 노래 소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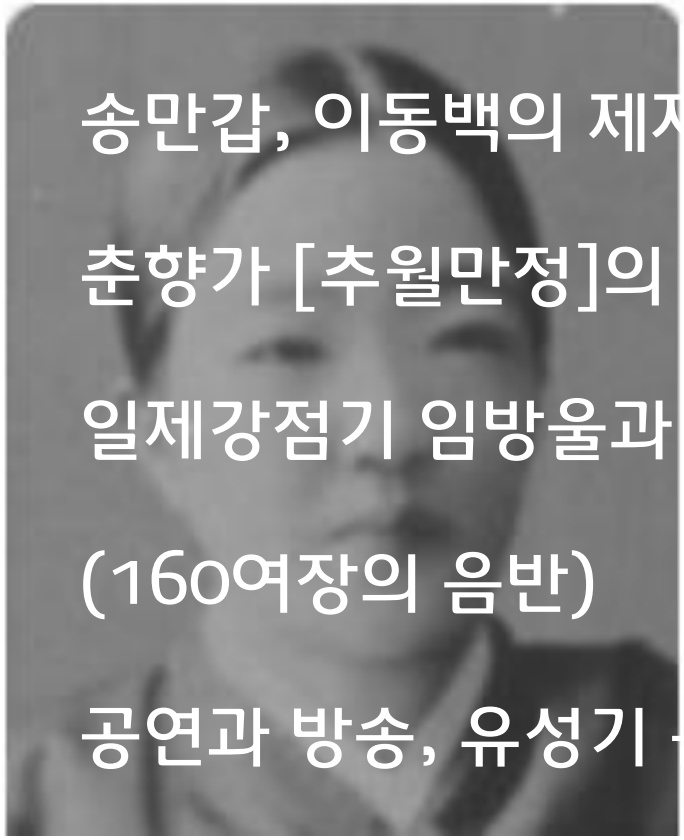
이화중선씨는 키가 작아요. 꼬마둥이만큼 밖에 안돼. 몸도 가늘고 약허고,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노래를 허는데, 아무리 높고 어려운 목도 고개 하나 까딱, 눈 하나 까딱 안 허고 곧게 서서 해요. 화중선씨는 갈빗대 하나가 없는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소리가 나온다고들 했어요.

명창 김소희

6. 판소리 명인열전

이화중선(1898~1943)

첫 판소리 스타, 미성에 고성



송만갑, 이동백의 제자

춘향가 [추월만정]의 스타

일제강점기 임방울과 더불어 가장 많은 음반 제작

(160여장의 음반)

공연과 방송, 유성기 음반으로 '넘사벽'의 대스타가 됨

일본 공연 후 귀국 중 바다에 투신

The End